

南北 공동조성 '평화대장경' 해인사 장경판전에 봉안 공존과 상생 '민족대장정' 시작

고려대장경 조성 천년 기념의 해를 맞아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선각스님)에서 남북이 공동 제작한 '평화대장경'을 장경판전에 보존하는 봉안법회가 지난 19일 열렸다.

이날 봉안법회는 해인사 비림(碑林)을 출발하여 대적광전 앞 탑마당의 법회장에 평화대장경을 안치하는 '이윤의식'으로 시작했다.

평화대장경은 지난 9월5일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안한데 이어 이날 해인사에 봉안했으며, 팔만대장경 판각지인 남해 화방사와 강화 선원사에도 각각 봉안될 예정이다.

법전 중정예하는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과 화방사 주지 종호스님, 남해군수, 선원사 주지 성원스님과 인천시장에게 각각 평화대장경 1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평화대장경 판각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성함으로써 공존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1000년 전 대장경 조성을 통해 외침을 극복하였듯 평화대장경 조성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를 이룩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불사가 공존과 상생의 민족사적 대장정의 시작"임을 천명하였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경남지사·인천시장·남해군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은 환영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대장경 조성은 국가위기에 처했을 때 민심을 화합

하고 지혜를 눈 뜨게 했다"며 "천년이 되는 해에 다시 조성불사를 하는 것은 평화와 생명존중의 반야지혜를 실천하여 한반도가 극락정토가 되기를 발원하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인-1경판 인연맺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9월 3일 평양 보현사 이어 남해 화방사·강화 선원사도 평화·생명존중 지혜 실천 '1인-1경판 인연맺기 동참'

이어 김두관 경남지사는 "인류문명사에 길이 빛날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에서 다시 평화대장경을 조성해 봉안하는 관계자와 불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축사를 했다. 또 송영길 인천시장은 "고려의 대동강쟁으로 대장경을 만들었던 평화대장경 조성이 남북통일과 중생구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봉안법회가 끝난 뒤 중정예하를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무원장 영담스님과 해인사·화방사·선원사 주지, 경남지사·인천시장·남해군수 및 신도대표는 10매의 경판을 직접 모시고 대적광전 앞을 출발하여 장경판전에 봉안했다.

권순학 경남지사장



지난 19일 '평화대장경' 봉안법회를 마친 후 법전 중정예하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이 경판을 장경각으로 이송하고 있다. 해인사=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여진불교문화재단 조계종 '품으로'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사장 취임...선원 개원

불모(佛母)인 여진 이진형 여진불교미술관이 40년 동안 일군 여진불교미술관과 여진불교문화재단을 조계종에 회사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재단법인 여진불교미술관 앞마당에서 '이사장 취임 및 여진선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진형 관장의 회사로 여진불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취임했으며 여진불교미술관은 대전지역 문화포교도량 '여



여진불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자승스님이 이진형 여진불교미술관장에게 중정예하 표창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불모 이진형 관장 미술관·재단 운영권 종단에 회사 '귀감'

진선원(주지 무진스님)으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불상조각장인 이진형 관장은 11년 전 불교문화재단을 통해 포교도량으로서 여진불교미술관을 건립한데 이어 2005년에 여진불교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이 관장은 불교문화포교가 보다 대중화되길 서원하며 조계종에 운영권을 이양했다. 여진불교문화재단은 2만818㎡의 부지에 미술관과 전시실, 전수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날 새롭게 문을 여진선원은 국내 유일의 삼천불석가여래 등 수많은 불교작품을 보유하고 있어 포교도량이자 불교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여진불교문화재단은 이사장에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사로 총무원 총무원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정만스님, 문화부장 진명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스님, 여진선원 주지 무진스님, 이진형 여진불교미술관장이, 감사로

총무원 재무부장 도문스님과 정병택 조계종 법무전문위원이 각각 소임을 맡게 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진형 관장에게 중정예하 표창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 평생 소중히 일구온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종단에 회향한 이진형 관장의 결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온다"면서 "이진형 관장의 뜻을 오롯이 담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고산스님은 법에서 "부처님께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버리라고 하셨지만 중생들은 가진 것 좋아해도 버리지는 않는다"면서 "이진형 관장처럼 자신의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회사할 수 있는 불자의 삶을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형 관장은 "불교문화포교를 위해 여진불교미술관이 보다 더 큰 틀에서 도약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조계종에 회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활기찬 마음으로 부처님의 성상(聖像)을 조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인택 기자 이시영 충남지사장

통일장관 "불교계에 불편 끼쳤다"

방북승인 혼선 '사과'

지난 12일 조계종의 금강산 방북승인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물의를 일으켰던 통일부의 류우의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공식 사죄했다. 류우의 통일부장관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실무자가 서둘러 일을 하다 불교계에 불편을 끼친 것 같다"면서 "넒은 마음으로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푸시기 바란다"며 공식 사죄했다. 이어 류 장관은 방북

승인과정에서의 혼선 과정을 총무원장 스님에게 설명한 뒤 "불교 등 종교계의 남북교류행사는 정부의 정책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을 승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계는 앞으로 '공존'과 '상생'으로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북불교계간의 종교행위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순수한 인도적 종교간 교류로 봐서 폭넓게 인정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한중일 불교대회 11월 1~2일 낙산사

3국 '황금유대' 확인

아시아를 대표하는 3국 불교의 '황금유대'를 확인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오는 11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양양 낙산사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국으로 중국과 일본 불교 대표를 초청하는 이번 교류대회는 올해로 14차를 맞았다.

첫날 3국 교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환영만찬이 이어지고, 다음날에는 세계평화기원대법회 봉행을 비롯해, 3국 예불의식, 각국 회장 스님들의 세계평화기원 등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식전행사로 낙산사의 원만 복원을 기념하고 3국의 우의와 환경보존을 기원하는 기념식수도 열린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며, 저녁에는 3국 불교의 '황금유대'를 재차 확인하는 회향 만찬이 펼쳐진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社告

10·27법년 31주년 '독후감 공모전'

- 참가대상 : 중·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 등
- 응모 마감 : 2011년 11월 30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연락처 명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9번지 5층 불교신문사 / 10·27법년 독후감 공모전 담당자)
- 응모 분량 - 중·고등학교생 : 200자 원고지 10매
- 대학생 및 일반인 : 200자 원고지 20매
- 응모 방법
그동안 발간(상영)된 10·27법년 관련 영상물, 자료집, 서적 등에 대한 소감문 제출
※ 해당 자료는 10·27법년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 불교 : 조계종총무원장상 - 500만원
중앙총회의장상, 불교신문사장상, 동국대학교총장상 - 각 300만원
▶ 정부 : 국무총리상 - 500만원
국방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0·27법년피해자명예회복심의 위원장상 - 각 300만원
■ 시상식 : 2011년 12월 중(추후공지)
■ 당선작 불교 신문 '개념 및 기법' (업난 '개요 포함')로 게재·배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bulgyo.com / www.1027beopnan.go.kr 에서 확인하십시오.
■ 문의 : (02)730-4488 (불교신문사 10·27법년 독후감 공모전 담당자)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권 불교신문사 후원 10·27법년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1 호남불교 포교 결집대회

다시/함께 세계와 함께

- 일시 : 2011년 10월 30일 일요일 (음 10.4) 오후 2:30
- 장소 :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호남지역6본사협의회
- 주관 : 광주전남전법단, 전북불교신도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전북포교사단, 광주전남포교사단